

신세계, 파라마운트 IP 확보... '트랜스포머' 테마파크 만든다

(지식재산권)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체결
미션임파서블, 스타트렉 등 보유
일각선 수익·실현가능성 우려도



지난해 열린 '화성국제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비전 선포를 하는 모습. /뉴스시스

“신세계그룹이 가진 모든 사업 역량을 쏟아부어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고 국가 관광 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말이다. 늘 변화를 강조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꿈이 또 한번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돔구장(멀티스타디움)과 복합쇼핑몰을 결합한 '스타필드 청라'에 이어 테마파크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처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와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파라마운트 브랜드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해 테마파크를 만드는 이번이 첫 사례다.

파라마운트의 IP는 미션임파서블, 탑건, 트랜스포머, 네오마지 스폰지밥, নিজ거복이, 스타트렉 등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IP를 놀이기구, 프로그램 등에 결합해 프리미엄 콘텐츠와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약 4조5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경기도 화성 송산 그린시티 내 약 36만 평 규모 부지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접목한 '스타베이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장은 2029년을 목표로 한다.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 '스타베이 시티' 단지 내 조감도 /신세계프라퍼티

해당 사업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직접 핸들링 할만큼 힘을 쏟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10일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경기도 화성에서 파라마운트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정용진 회장은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어 국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며 “단순히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숙박, 리조트, 상업시설, 골프장, 주거단지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회장의 이같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의지는 테마파크 뿐만이 아니다.

정 회장은 프로야구 SSG 랜더스를 인수할 당시 스타필드 청라를 통한 '청라 돔구장' 설립에도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은 스타필드 청라를 “세계 최초, 최고의 대한민국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타필드 청라는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1년 내내 열리는 복합문화관람시설과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결합된 멀티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청라국제도시 지역 인근 15만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현재 토목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11일 지상층 건축변경 허가 절차도 마쳤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2027년 멀티스타디움을 결합한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청라' 준공, 2029년 화성국제 테마파크에 국내 최초의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만큼 사업 확장의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그간 전무했던 글로벌 테마파크가 한국에 설립된다는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실현가능성과 수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없던 테마파크가 설립된다는 건 무척 기대된다. 국가의 위상이 높아질 좋은 기회다. 다만, 신세계가 다양한 규제 이슈를 극복하면서 목표에 맞춰 실현할 수 있을지와, 이에 따른 수익성이 잘 발생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유류세 인하 폭 축소... 휘발유 1당 약 40원 ↑

경유·LPG 탄력세율 30%→23%
매점매석 행위 단속... 반출량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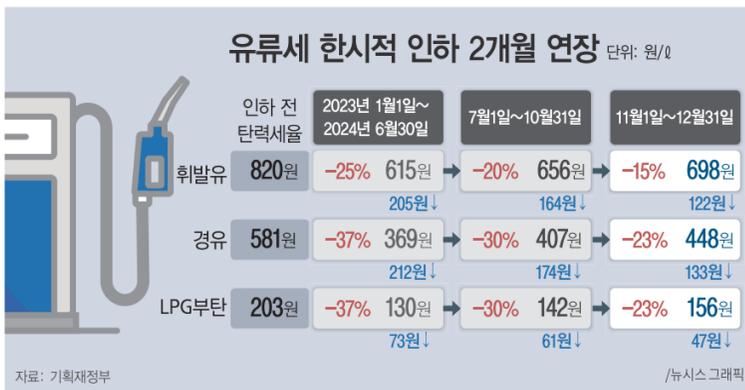
다음 달부터 휘발유에 붙은 세금이 리터(1) 당 약 40원 오른다. 연료비 부담 상태에서 가득 주유(50~60리터) 시 2000~24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인하 폭은 각각 30%에서 23%로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조처는 이같이 할인율이 일부 환원된 채로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연장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는 지난 2021년 11월 시행 이후 도합 12차례 연장됐다.

11월부터 세 부담 경감은 휘발유는 1리터당 122원, 경유는 1리터당 133원, LPG는 1리터당 47원으로 축소된다. 현행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



는 174원(30%) 내린 407원, LPG 부탄은 142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698원, 448원,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휘발유·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선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 달간 한 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1리터당 1593.35원으로 집계됐다. 전일대비 0.45원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안정적인 흑자 유지할 수 있을 것”

>> 1면 '산업용 전기요금 9.7%'서 계속

2023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 전력사용량은 263테라와트시(TWh)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한전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필수 전력설비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되면 전력망 적기 확충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고 정전과 고장 예방을 위한 전력설비 유지보수 차원의 적기 조달이 곤란해 사재를 지속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이 동반 부실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정상화에만 기대지 않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

속적인 전력 구입비 절감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번 요금 조정에 따른 한전 재무구조 개선 효과에 대해 “LNG 가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해 수치를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안정적인 흑자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금리 부담이 축소되고 그로 인한 환율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유가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크게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상반기 상황을 좀 더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2028년 공사 착수, 2034년 지하화 완료”

>> 1면 '서울시 지상철도 전 구간'서 계속

시는 서울역·용산역 등 도심 내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한 상부 개발 이익을 그간 지상 철도로 소외됐던 서남권과 동북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도 사업지 개발 계획을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제안을 받아 선도사업지를 선정한다.

시는 2028년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34년까지 철도 지하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어 2035년부터 2045년까지 약 10년간 상부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플랜B가 있느냐’는 물음에 조남준 본부장은 “서울은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어느 정도 규모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토부가 전 구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조 본부장은 “경부선 일대에 대한 부분이 우선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

지역 간 이동자 급증... 순유입 1위 '경기'

통계청 9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
3년새 최대 폭 증가... 순유출 1위 서울

지난달 국내 지역 간 이동자 수가 3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9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했다. 지난 2021년

9월 56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가 이동했다.

총 이동자가운데 시·도내 이동자 비중은 67.1%, 시·도 간 이동자는 32.9%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시도내 이동자는 2.7% 증가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3.8% 증가했다.

지난 9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순유입된 곳은 경기(4659명), 인천(1809명), 충남(718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을 보였다. 반면 서울(-4300

명), 부산(-1127명), 경북(-886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7월 주택매매가 증가한 것이 9월에 반영되면서 인구이동이 늘었다”며 “전입신고서에 작성된 서울에서 경기 등으로 이동하는 사유를 보면, 직업과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가는 서울 밖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9%(1124명)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